

*** 미니멀리즘 건축공간에 나타난 동양적 사유 방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astern Ideas and Minimal Thinking in Architectural Space

김주원* / Kim, Joo-Won
 윤갑근** / Yoon, Gab-Geun

Abstract

This study is on relations between minimalism, which is one of important theme in the contemporary design, and East-oriented speculation. Minimalism, one inclination of neo-modernism is characterized by Essentialism. That is connected with East-oriented thinking, especially Taoism. The paradigm of contradiction and paradox replaces the paradigm of rationality and the law of cause and effect.

Minimal tendency is appeared at Modernism in 60's and Neo-modernism in 90's. The differences are originated with their manner on simplicity. Minimal tendency in Modernism is characterized by 'less is more' and that in Neo-modernism is by 'more with less'. The minimizing strategy is not considered as means as in modern age but as purpose in neo-modern age.

This paper explains minimal architectural space as spatial problem and recognitions on that, not as the figurative problem. Conclusively the relationships between minimalism and eastern ideas are represented through the boundary and extensity of space, void and solid, de-formalization and Essentialism.

키워드 : 미니멀리즘, 뉴모던, 동양사상, Essentialism, Neo-Modernism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모더니즘과 거장들의 시대가 지나간 이후의 현대건축의 양상이란 모더니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는 제대로 풀어낼 수 없다.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건축적 시도들로 이루어진 현대건축의 다원화 경향이 이제 어느 정도 몇 가닥의 양상을 띠면서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크게 나누면, 모더니즘의 반양식적, 반역사적 성향에 반발하여 건축에 구체적인 형상을 다시 도입하며, 건축이 서 있는 장소의 기억을 반영하려는 부류가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모더니즘을 끝까지 않은 프로젝트로 인식하여 그 연장선상에서 사고의 축을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다시 모더니즘의 기계 미학의 전통을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레이트-모던 계열과 모더니즘의 기하학적

형태 구성의 원리 등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네오-모던 계열의 건축으로 양분되는데, 해체적 구성주의나 미니멀 경향의 건축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본 연구는 현대디자인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미니멀리즘의 특성들에 대하여 동양적 사유틀 속에서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로써 미니멀리즘이 더 이상 수입된 디자인 양식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위해 제시되는 주체적인 디자인 대안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둔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미니멀리즘과 동양적 사유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먼저 미니멀리즘이 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을 띠게 된 원인 설명을 위하여 2장에서는 미니멀리즘의 발생에서부터 현대디자인에서의 위상, 그리고 동양적 사고와의 관계맺음을 통한 발전가능성을 모색한다. 3장은 건축공간 속에서 미니멀리즘의 발전경로를 고찰하고, 특히 모더니즘과 뉴모더니즘의 미니멀 간의 서로 다른 성향에 초점을 맞추어 뉴모더니즘 계열의 미니멀 성향이 어떻게 동양적 사고와 관계맺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4

* 정회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정회원,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 전임강사
 *** 이 논문은 교육부 지정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조선대학교 산업디자인 특성화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장은 이러한 미니멀리즘의 특성들에 나타나는 동양적 사고의 경향을 유형화하여 각각에 대한 비교분석을 행하며, 5장은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는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1960년대 이후의 건축공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 작품의 사례분석보다는 기초에 나타나는 사상적 배경과 의미를 주로 다루고 있다.

2. 미니멀리즘과 현대사회

2.1. 미니멀리즘의 발생

미니멀리즘이란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미술사에서 모더니즘의 정점을 이룬 하나의 사조를 일컫는 용어이다. 최근의 현대 건축의 단순화 경향을 일컬어 '미니멀'하다는 표현이 곧잘 쓰여지는데, 미술사적 의미에서의 미니멀리즘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어의적 의미에서의 '최소화'에 형태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설명될 수 있다.

미술에서의 미니멀 운동은 장식으로서의 미술, 혹은 행위로서, 자기 계서로서, 해프닝으로서의 미술에 반기를 든 것으로, 미술 작품을 그 자체로서 의미있는 독립적 존재로 규정한다. 이 운동은 그 전의 어떤 전위적 운동과 달리 미술 이외의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미니멀리즘은 후기전위 post-vanguard 라 불린다. 이들은 순수색채나 기하학적 전통-말레비치나 몬드리안, 엘비스 등의 구성주의 계열의 전통과는 비록 형식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별되는데, 미니멀리스트들의 미니멀한 기하학적 경향, 즉 감성이나 연상작용을 자극하기 쉬운 이미지나 재질감을 배제한 까닭이 오로지 미적 반응만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유희주의로 편입시킬 수 있다.¹⁾

문화 변동의 혼돈 속에서 작가들은 곧잘 미술을 물질적 요소라는 뼈대만으로 추려내고 싶어하는데, 이런 경향을 환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환원주의는 특정한 하나의 양식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환원의 전통적인 목적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표현의 축약을 통하여 정서적이고 지적인 진술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작가는 중요성을 상실한 심상이나 기법의 찌꺼기들을 제거함으로써 사과를 한 개의 다이아몬드로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다. 미니멀리즘은 그들의 환원적 테크닉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 회화와 조각을 다만 형태적 경험으로, 나아가서 경험의 반향으로까지 정화시켜 보겠다는 그들의 원칙적 결단 때문에 새로운 것이다. 이제 미술에는 '내용없음' 즉 공백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브 클랭의 빈 하늘로서가 아니라 정확하고 산뜻하면서도 텅 빈 미술로서이다. 이러한 공백은 이제까지 있어왔던 미술을 폐기하고 불순한 제 충동이 정화된 작품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공백이다.²⁾

작품에서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정화되면 될수록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더욱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섬세한 감각이 요구되는 것이다. 미니멀주의 그림은 거의 모두가 '시각 문화'의 폐기를 나타내는 한편, 중추신경계의 반응을 요구한다는 맥무한의 논제를 떠올리게 된다.

따라서, 미술에서의 미니멀리즘은 극단적인 유희주의와 본질을 추구하는 환원주의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를 획득하기 위해 선과 공간의 매마른 상태, 발산, 세련된 단순함과 계획, 절제된 색채를 찬미한다.³⁾

건축에서의 미니멀리즘은 건축의 장르적 특성상 미술에서의 그것처럼 극단적으로 흐르지는 못하였지만, 극단적 추상공간의 추구라는 점에서 형태와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공유한다.

2.2. 현대 디자인과 미니멀리즘의 위상

산업혁명에 의한 기계 패러다임이 통용된 근대세계는 모든 측면에서 역사와의 절연한 단절로 설명되는 부분을 지니고 있었고, 디자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근대 디자인의 패권을 주도해 온 모더니즘의 경우 역사와의 연결고리를 배제한 채 기능중심적인 순수형태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전후의 세계 상황에 따라 모더니즘의 주류로 떠오른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이 가진 획일적이며 비인간적인 조형형태에 대한 반감이 1960년대를 전후하여 다양한 형태로 모색되었는데, 이는 모더니즘과의 관계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대두된 정보혁명은 세계를 기계 패러다임에서 정보 패러다임으로 변혁시켰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감소되며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대세계는 다원화 경향과 비물질화 경향으로 특성화되었다.

프랑스와 장 룩파르는 1986년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열렸던 비물질성을 주제로 한 전시회에서 현대문화를 비물질문화로 규정하면서 "이 명칭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다. 내가 흥미롭게 생각한 것은 지금까지처럼 육체적인 작업을 대신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정신적 작업을 대신해 주기 위해 발명된 새로운 기술이다... 정신의 구분과 물질의 구분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고, 그것만으로는 현대 우리가 사는 방식과 사고하는 방식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⁴⁾ 고 하고 있다.

정보 패러다임 아래에서의 시공간의 초월은 디자인에서의 물질성에 대한 강박관념을 제거하였고, 현대 디자인은 혼돈과 모순으로 가득찬 현대사회의 복잡한 양상에 대한 어떤 형태론적이지의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니멀리즘은 다원화경향에 대하여 어떤 성향에도 편입하지 않는 중성적인 표정을 갖는 중재자로, 또한 물질세계의 모

2)Ibid, p.151

3)하민수, 미니멀리즘의 의미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홍대석, 1986, p.1.

4)로마르(1986, 비물질성 전시회 카탈로그, 퐁피두 센터), 강소연·김형우, 패션매장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의 실내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회지 16호, 1998.8, p.69에서 재인용

1)헤롤드 로젠버그(1967), 미니멀아트에 대한 정의 참조, 오병욱 역, 현대미술의 흐름, 열화당, 1986, p.150

든 제약에서 벗어난 비물질적 경향의 중요한 표현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90년대 스타일'⁵⁾이라는 명칭으로 디자인계에서의 잠정적인 패권을 부여받고 있다. 미니멀 디자인은 점점 복잡하고 다원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의 반향으로 다시 회귀되는 근본적 디자인 경향으로 보여지며,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될 디자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2.3. 미니멀리즘의 전망과 동양적 사고의 개입

1960년대를 전후로 한 미술에서의 한 경향을 일컫는 미니멀리즘 이전에 동서양의 문화적 전통에서 미니멀적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전통적으로 동양문화는 미니멀 경향과 연관이 깊다. 서구의 초기 근대 건축으로 분류되는 미술공예운동이나 아르누보 운동에서의 동양 문화의 역할, 특히 일본과 중국의 영향 등은 자포니즘(Japonism), 시노아즈리(Chinoazuri) 등의 용어로 19세기 후반 근대 건축의 형성기에 아르누보 건축가를 비롯해 라이트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한편, 뉴욕의 미니멀리즘은 평범한 사실과 솔직한 발언을 높이 평가하는 미국의 명확한 전통에서 출발한다. 철학, 문학, 사진예술 등의 여러 선구자들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있지만, 특히 건축에서 주목되는 것은 18세기, 19세기의 유토피아적 사회실험의 정신에서 출발한 종교공동체들이다. 흠어짐(distraction)이 적을수록 신(God)에 집중하기가 쉽다는 청교도적 이론은 미니멀리즘의 형이상학적 측면에 대해 많은 설명을 제공한다. 특히 웨이커 공동체는 사회적인 의의 뿐 아니라 종교적, 또는 정신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절제되고 기능에 충실하면서 놀라운 장인정신이 담긴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천사가 내려와 앉을 수 있을 만큼" 꼼꼼하게 마무리된 웨이커 공동체의 가구들은 오늘날에도 절제된 아름다움의 본질적 의미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미니멀리즘은 청교도적 건축은 아니다.⁶⁾ 미니멀리즘은 야원, 경직됨, 순수성, 단순성, 부정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는 신에 대한 사려깊은 주의집중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개인적이며 일상적인 것이다. 번잡한 세속과 정제된 신의 세계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파악되는 서구세계에 대하여 일상의 교묘함과 이를 통한 어떤 경지의 자기체득이라는 일원론적 세계관이 통용되는 동양세계는 미니멀리즘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의 집중에 보다 가까운 측면을 지닌다.

채움보다 비움을 강조하며, 인간의 존재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말하는 노장사상과 허체와 실체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불교사상, 금욕적이고 절제된 생활철학을 강조하는 유교사상 등 동양

의 주요 사상들은 근본적으로 '감소적'이다. 이는 현대의 미니멀 건축이 일본, 한국 등의 동양과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 등지의 유럽 국가 등 주로 지역적인 전통과 문화에 기반하여 발전하고 있는 데서 예증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시각문화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 온 서구의 조형 전통에 대하여 기(氣, energy)로 대표되는 몸으로 체감하는 건축적 전통을 유지해 온 동양 세계는 향후 펼쳐질 미니멀 세계에 대하여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더니즘 추상공간이 완성되는 데 결정적 선례 역할을 했던 동양적 공간관이 이제 다시 미니멀리즘 추상 공간이 형성되는 데 똑같은 역할을 반복하고 있다.⁷⁾

가능한 모든 시각적 의미를 제거하여 존재하게 되는 미니멀 조형의 성패는 이제 더 이상 시각적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도로 집중된 정신세계의 표현과 섬세하게 조절된 공간의 기운에 따르게 될 것이다.

3. 모던 미니멀과 뉴모던 미니멀

3.1. 미니멀리즘 형성에 미친 근대건축운동의 영향 :최소성의 공유

미니멀리즘은 모더니즘의 정점으로서 기능주의, 절대주의, 합리주의, 데스틸, 부르탈리즘 등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환영(Illusion)을 배격하며, 전통과 혁명, 낭만주의와 합리주의, 구상과 추상 등의 이분법 구조에서 후자에 위치하고 있다.

이미 건축에서는 모더니즘 운동의 시작과 함께 국제주의 건축양식에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명확한 형태 요소의 사용과 주변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성'을 표출하게 된다. 이 영향은 오늘날 미니멀리스트들에게 형태 어휘의 기원으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할 수 있다. 과도한 재료와 장식성의 사용은 본질로 향하기 위한 이념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그와 반대로 최소화 개념으로 흐르는 단순성은 전형적인 기하학적 형태와 일반적인 아이디어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부여한다.

장식적인 건축양식에 대한 공식적 발언은 아돌프 로스(Adolf Loos)가 1908년 발표한 '장식과 그는 범죄자와 문신의 예를 들면서 문화의 진보란 실용적인 물체로부터 장식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르 꼬르뷔제는 로스의 "사람들이 세련되어질수록 좀 더 꾸밈이 없어진다"라는 말을 인용함으로써 이러한 문화적, 사회적 암시를 빨리 확증하였다.⁸⁾

건축에서 구체적으로 미니멀적 특성이 나타난 것은 40년 전의 미스 반 데 로에의 '적을수록 풍부한 Less is More' 개념이다. 미스는 이미 1923년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글 중에 "가장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미 표현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개

5)(연구자주) Glancey & Bryant, The New Modern, Academy Edition :London, 1990에서 재인용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미니멀리즘을 모더니즘의 정점이자 거부로 해석되는 90년대의 스타일로 규정하고 있다.

6)미니멀리스트들이 금욕과 절제를 생활원칙으로 하는 시토수도회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찰스 쟁스의 '부티끄 시토수도회주의 Boutique Cistercianism'라는 비유에서 보듯 패션부티끄 등 상업공간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에서이다.(Royal Academy and AD Forum, London, 1998.11.: AD, Aspects of Minimal Architecture II, 1999, pp.9-17 참고)

7)Ibid, p.81

8)Aspect of Minimal Architecture, Academy Edition:London, p.7

넘성은 우리의 현대에까지도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미스류의 건축 경향(Neo-Missian)으로까지 나타나게 된다.

또 한 쪽의 미니멀리즘의 기원은 루이 칸(Louis Kahn)과 르 꼬르뷔제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미스가 형태적인 기원을 제공했다면 칸과 르 꼬르뷔제는 콘크리트와 빛이라는 재료를 이용한 공간의 드러냄이라는 차원에서의 미니멀리즘의 시원이 된다.

3.2. 모더니즘과 뉴모더니즘의 미니멀 특성

:보편주의와 본질주의

'minimal architecture'라는 용어는 1988년 12월 이탈리아 잡지 '라 세나 Rassegna'에서 세기말 속의 새로운 경향인 '미니멀 minimal'을 공식적으로 기술하면서 보편화되었다.

미니멀리즘은 형식적 순수주의의 특성을 극단적으로 실행하고 자기 환원적 성격을 극한대까지 실현함으로써 모더니즘의 정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니멀리즘은 단순성, 동어 반복적인 성격, 물체성, 전체성, 강력한 단일성 등을 그 환원적 특성⁹⁾으로 한다. 이는 비재현적 형태, 즉 추상 형태를 지향하는 모더니즘의 건축적 이상에 부합하여, 공통적 성격으로서 조형 요소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순수성에 대한 집념은 형태의 순수성과 색채의 자율성으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순수하게 만들어내려는 노력은 결국 추상의 방법으로 전제되었다.

이런 미니멀리즘의 표현특성을 두고 찰스 젱스 (Charles Jencks)는 '뉴 모던 The New Modern'에서 삶에 대한 통찰력이 적어지는 현대건축이라 하여 미니멀리즘을 포함한 뉴모던 계열의 건축을 비인간적인 유미주의와 의미없는 엘리트주의로 일축하고 있다.¹⁰⁾

반면 콘라드 제임슨(Conrad Jameson)은 이에 반대하여 뉴모던 건축을 모더니즘의 '최소화'라는 수단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슈퍼모던(Super Modern)으로 지칭하면서 건축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환원적 태도를 강조하였으며¹¹⁾, 글랜시와 브라이언트(Glancey & Bryant) 역시 '20세기 복고주의 Twenties Revivalism'에서 1980년대 영국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에서의 미니멀적 경향을 '신비하게도 끝나지 않는 프로젝트¹²⁾'라고 언급하고 있다.

현대건축의 대표적 논자인 젱스, 프렘프톤, 브로드벤트, 크라이어, 콘라드 제임슨 등은 1990년 런던 테이트 갤러리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¹³⁾에서 '새로운 모던 The New Moderns' 라는 주제로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뉴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관계는 "다시 근본으로 Back to Basics¹⁴⁾"

라는 어구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은 본래 80년대의 폭발적인 소비자보호주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지금의 건축적 상황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뉴모더니즘이 "근본 Basics"으로 상징되는 모더니즘으로 회귀하는 상황이 묘사되는데, 과연 모더니즘과 뉴모더니즘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뉴모더니즘은 물론 모더니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더니즘이 기능과 합리성에 기반을 둔 보편주의(Universalism)라면 뉴모더니즘의 양상은 보다 목적적이고 근원적인 본질주의(Essentialism)라고 표현된다. 그 차이는 이들의 공통적 형태인 '최소성'을 대하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단편적으로 모더니즘의 보편주의의 명구가 '적은수록 풍부한 Less is More' 이라면 네오모더니즘의 본질주의는 '보다 적은 것을 통한 보다 풍부한 것 More with Less'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Less'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즉 본질에 다다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감소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환언하면, 모더니즘의 '빈 공간'은 어떤 것이라도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비움'으로 수단을 의미하지만, 뉴모더니즘의 '의도적으로 비워진 공간'은 다분히 내향적이며 목적적이다. 비워진 자체가 완성을 뜻하며, 더이상의 채움을 허용하려 들지 않으며, 비워진 공간은 내면을 향하는 투사체로서의 목적적인 공간이며, 그 것으로부터 확장되어 나가는 환경성을 내포한 공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더니즘이 합리적 개념의 서구적 공간이었다면 뉴모더니즘의 공간은 시각적 표현과 의미를 넘어서는 동양적 공간이다.

4. 미니멀리즘과 동양적 사유방식의 관계

미니멀리즘은 근본적으로 '감소화'를 전략적 도구로 채택한다. 형태와 재료, 색채 등의 절제와 이를 통한 표면적 의미의 감소로 나타나는 최소형태와 공간은 미니멀 건축공간의 공통적인 형태표현의 일면으로 보여진다. 단순성이라는 미니멀 디자인의 형태적 표현의 목적은 물질적이라기 보다는 비물질적인 경향으로, 합리적 세계관에서 역설적인 세계관으로, 외향적이며 발산적인 세계에서 내면적이며 수렴적인 세계로의 지향으로 보여진다. 이는 전통적인 동양 사상, 특히 노자의 도가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다음에서는 형태적인 표현보다는 공간적인 처리와 의미를 통하여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4.1. 경계와 확장적 세계

건축공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환경 속에서의 인간적 질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경계는 중요한 구축의 수단이다. 경계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관점에서 파악하자면 환경을 한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내부에서 외부로 나아가는 관점에서라면 공간의 확장을 꾀하는 방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경계란 그것이 없다면 공간을 지각

9) 신정화, 현대 조형예술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적 특성과 실내공간 구성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1996, p.54

10) The New Modern Aesthetic, Architectural Design, Academy edition, London, 1990(pp.12-15참고)

11) Ibid, p.15

12) Ibid, p.23

13) The New Modern Aesthetic, Architectural Design, Academy edition, London, 1990

14) (연구자주)1980년대 소비주의의 확산에 대한 반발에서 기인한 용어.

할 수 없으며 경계가 없이 무한히 확장되는 환경성과 이를 통한 인간의 환경과의 관계맺음은 건축공간의 본질과 관련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경계가 지나는 중복적 의미를 고려할 수 있다.

노자는 '가장 큰 것은 경계가 없다'고 하였으며 인간은 환경의 물리적 감싸여짐이나 또는 좀더 낮은 정도의 시각적 한계성을 경험할 때에만 환경은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게 된다. 물리적 경계가 없는 조절된 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 없는 형태의 신축성은 의도적으로 제공된 융통성있는 공간에 의해서만 충분하지 않게 존재되며 암시될 뿐이다.¹⁵⁾

미니멀 건축공간에서 경계란 공간(void)을 한정하기 위한 건설한 고체로서의 성격(solidity)으로 나타나되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환경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반복'과 '여백'이라는 두 가지 목적적 수단을 내세운다.

반복은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상관구도를 피하여 중성화시키려는 의도이다. 전체에 예측되는 부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단지 연속적으로 하나가 하나를 뒤따르는 단순한 순서일 따름'¹⁶⁾이다. 반복성의 의도는 부분을 파기하는 전체성의 추구인데, 이에 따라 공간적 확장과 환경적 상황을 이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주위 환경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¹⁷⁾하게 한다.

또한 확장성이란 공간의 규모에 따라 좌우되는 성질 이상의 것이다. 채워진 곳과 비워진 곳의 상대적인 비례로 나타나는 여백은 일종의 완충과 확장이라는 역할을 하며, 공간의 확장을 꾀한다. 물리적으로 감싸여진 경계와 시각적으로 한정된 공간의 경계 사이에 있는 여백 안에 이것이 있다.¹⁸⁾

안도의 '비어있지만 감성적으로 충만한 벽'¹⁹⁾은 벽체가 갖는 경계의 의미를 넘어 자연과 인간을 매개하는 환경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커티스는 이것을 '일본의 주거공간이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잃어버렸던 주거와 자연 사이의 통합성을 회복하는 것'²⁰⁾이라고 하여 그 비어있는 벽체 속에 깃든 정서의 원류를 일본의 지역적 문화, 한자문화권이 공유하는 동양적인 사유체계 속에서 찾고 있다.

4.2. 허체의 표현과 역설의 세계

미니멀 건축공간의 표현은 근본적으로 역설적이다. 적은 것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으려는 시도는 합리적 이성의 계량방법으로는 찾아내어질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노자의 역설을 도입해 볼 수 있다. "완전하지 않은 완성은 유용하며, 채워지지 않은

충만은 바람직하다"²¹⁾, "부족되는 것은 얻게 만드는 힘을 갖는다"²²⁾, "존재하기 위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있다."²³⁾ 등으로 표현되는 역설의 세계는 미니멀 건축공간이 지닌 상대적 힘을 시사한다.

공간(void) 자체는, 정신적인 삶 자체와도 같이 시지각과 청각을 초월한 것이다. "만저서 알 수 없는 성상(intangibility)의 주제와 일관성을 갖기 위해 인간은 자기의 물리적 존재를 일시적으로 보호해야 할지라도 생명의 중국성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최초와 최후의 존재가 고형체 대신 허공 속에서 실존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고형체에 대한 강조가 정신적 존재의 인지와 부조화를 이룬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인간 생명의 정신적 존재와 같이 허공은 실존적일 뿐만 아니라 무한한 어떤 것(something)이다."²⁴⁾ 또한 창(A.Chang)은 "매스는 공간을 위한 것이고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매스의 고형체성(solidity)을 줄이는 것이 공간의 잠재적인 다양성을 풍부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²⁵⁾라고 하여 공간의 짜여진 적층(積層)구조에 대한 언급을 시도하고 있다. 즉 물체성의 존재이유는 비물체성의 확립을 위함이고, 공간을 한정하는 경계의 강조는 중국에는 경계로 한정되는 공간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이는 영웅성(monumentality)을 획득하기 위한 물성과 거대규모의 강조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역설적인 건축공간의 추구이며, 여기에 역설의 세계가 숨어있다.

영국의 대표적 미니멀리스트인 실버스트린은 '양피감으로 지각되는 허체'²⁶⁾를 자신의 건축디자인 규범으로 삼고 있으며 공기를 돌과 같이 하나의 덩어리로 해석하여 공간이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역설을 취하고 있다.

한편 "나는 실내의 현실적인 공간성을 깨뜨려 버릴 수 있으며, 또한 전광의 환영을 방류함으로써 실내의 공간성을 희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²⁷⁾ 고 한 플래빈의 예술에서 일종의 물질에 대한 비물질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이는 입방체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비치는 반사와 투명의 가변적인 시각효과 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여기에서 형태와 물형태성 사이의 양극적인 긴장관계가 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간은 사물인지의 형식조건이 되며 공간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의식 또는 지각체계에 스스로 형성된 관념적 또는 선형적 형식인 것이다. 공간과 공간을 형성하는 요소들간의 관계는 선형적 인식 체계 속에서 전체적 관계를 지닌다. 즉 공간 없이는 어떠한 물체도 인지될 수

15)노자, 도덕경 41장: A. Tiao Chang, 건축공간과 노자사상, 윤장섭 역, 기문당, p.62

16)Rosalind E. Krauss, Passages in Modern Sculpture, The MIT Press, 1983, p.244

17)하민수, 미니멀리즘의 의미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홍대 석논, 1986

18)A. Tiao Chang, ibid, p.63

19)William J.Curtis,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Phaidon press, 1996, p.641

20)Ibid, p.640

21)노자, 도덕경 제45장: A. Tiao Chang, 건축공간과 노자사상, 윤장섭 역, 기문당, p.33에서 재인용

22)Ibid, 제22장, p.49에서 재인용

23)Ibid 제24장, p.51에서 재인용

24)A. Tiao Chang, 건축공간과 노자사상, 윤장섭 역, 기문당 1984, pp.39-40

25)Ibid, p.40

26)Claudio Silvestrin, Aspects of Minimal Architecture II:Something or Nothing-Minimalism an art and architecture, 1999, AD, p.9

27)루사-스미스, 1945년 이후 현대미술의 흐름, 김춘일 역, 미진사, p.249

없으며 반대로 물체 없이는 어떠한 공간도 인지될 수 없다. 보기에
는 단순한 것이 실은 복잡하리만큼 효과가 있다. 몸이 포착하는 공
간 감각과 건축으로 관련된 엄격한 기하학과의 차이가 갈수록 자극
을 받게 된다.²⁸⁾ 이런 대비효과는 단순성을 지향하는 미니멀 조형에
지각적 풍부함을 제공하는 요소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니멀 조형에서 종종 나타나는 극도의 개방감과
극도의 폐쇄감, 팍 막힌 벽과 그것을 뚫고 떨어지는 빛으로 연출되
는 실내공간은 결국 몸으로 체감하는 공간감과 연관지어진다. 과장
된 공간감은 공간의 빈 정도를 통하여 공간의 형태를 얼마나 순수
(혹은 비순수)하게 인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미니멀 건축 공간
은 고유의 미학적 의미를 가지며 정신적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⁹⁾

일찍이 칸의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듯이 차단된 벽과 떨어지는
빛이 연출하는 침묵의 공간은 이후 안도와 바에사, 포슨과 실버스트
린 등 대표적인 미니멀리스트의 공간에서 나타난다.

토이(Maggie Toy)는 안도(Tadao Ando)가 미니멀리스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일본적인 전통
위에서 작업하고 있으며 그 전통이란 음에 속에 다양하게 펼쳐지는
여백의 미학³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바에사의 경우 칸의 공간개념을 적절히 이어받고 있는 것으
로 보여지는데, 임석재는 바에사의 그라시아 마르코스 하우스를 두고
'모든 축조적 흔적이 지워진 극단적 백색 추상공간 속에 이처럼
방위적 질서를 형성해 주는 빛을 채움으로써 실내는 체험적 리얼리
티로 발전하고 있다'³¹⁾고 하여 미니멀리즘 건축공간의 지각이 시각
이 아닌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 눈이 아닌 몸의 건축임을 시사하
고 있다.

4.3. 탈허상화와 본질주의

미니멀 건축공간에서 보여지는 형태의 단순화는 오랜 기간 경험
속에서 굳어 내려온 형태에 입혀진 세속적 의미를 거부하는 탈허상
화를 위한 것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명료함을 드러내는 순수한
대상세계로 초점을 맞추어 3차원의 물체성을 획득하려는 시도이다.

상은 허상이라는 철저한 인식, 말하자면 세계란 대상 세계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자각에서 태어난 것이 오브제³²⁾라 할 때 주드
의 '특수오브제'에서와 같이 이것은 작가의 주관적 세계를 담은 것이
아닌 다만 대상을 표상화하는 일에 무관계한 중성화된 오브제 그 자
체를 의미한다.³³⁾ 즉 미니멀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최소화의
추구는 그 결과 환영(Illusion)을 최소의 단위로 제거하면서 전통적
조형세계에서의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부터 명료하고 엄격하며

단순하고 중성적인 대상의 세계로의 3차원 오브제의 발견, 다시 말
해 독립된 존재로서의 세계, 물체성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발견을 가
져올 수 있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주체(Subject)에 의해 감상되는 객체(Object), 주
체에 예측된 객체, 이로써 형성되는 계급관계를 거부하며 오히려 객
체를 통해 투사되는 주체로의 향함과 주체-객체의 순환을 통한 합
일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발전될 수 있다.

형태의 극단적인 단순화는 구상요소의 배제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는 '모든 것을 비워 스스로 존재하며 최소한의 존재 조건만을 가짐
으로써 외부의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 미니멀리즘 추상
공간³⁴⁾'이라는 정의와 같이 형태의 단순성과 함께 '비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움의 미학은 더 많이 비울수록 공간적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따라서 더 많은 얘기거리를 해줄 수 있다는 동양적 공간과
백을 같이 한다.³⁵⁾ 여기서 공간적 진실이란 보편보다는 본질에 가까
운 것으로 미니멀리즘 건축공간이 그 속에서 어떤 구상의 흔적을 찾
을 수 있던 간에 근본적으로 본래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한계를 찾
는 작업임을 드러낸다.

사물의 본질적 측면을 제외한 어떤 의미의 표현도 거부하는 미니
멀디자인의 내면에는 은유를 통한 상징과 그 표현이 사물의 본질,
결국에는 세계의 본질을 표상할 수 없다는 자각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미니멀 디자인에서 강조되는 표현성은 물체의 근원을 표면에
재위치시킴으로써 허상성을 배제하고 모든 선입견과 상징, 내부적
의미를 유보함으로써 본질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미니멀 건축공간에서의 이러한 본질로 향하는 환원적 특성을 재
료의 실험에서 볼 수 있다. 실버스트린은 재료 사용에 있어서 '재료가
거기에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변형하여 더 이상 그 곳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³⁶⁾고 하여 재료의 물질 조작 극복하려는 비물질
성에의 의지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물질과 형상을 제거
한 곳에서 '침묵의 존재, 비가시적인 것의 존재, 비물질적인 것의 존
재를 느낄 것'³⁷⁾을 강조한다.

형상을 제거한 채 재료의 한계에까지 밀어붙인 후 그 극한적 표
현을 통해 남게 되는 어떤 본질적인 감성, 그것을 미니멀 건축공간
에서는 구축과 형상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5. 결론

상기한 바와 같이 미니멀리즘은 21세기 디자인의 향방을 가늠하
는 매우 중요한 디자인의 한 유파이다. 근대 이후 세계의 역사적 호

28) Ando Tadao, Japan Architect JA, 1991.1., p.13

29) Ando Tadao, Blaster Werner, 1990, p.16

30) Maggie Toy, Aspects of Minimal Architecture II, 1999, AD, John Wiley & Sons, p.9

31)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의 공간, 시공사, 1999, p.67

32) 이우환, 오브제 사상의 정체와 그 행방, 홍익 미술, Vol.1, 1972, p.21

33) Suzi Gablik, Minimalism, in Concepts of Modern Art, Thames and Hudson, 1983, p.250

34) 임석재, 미니멀리즘의 상대주의의 공간, 시공사, 1999, p.82

35) Ibid, p.81

36) Claudio Silvestrin, op.cit., p.9

37) Ibid, p.9

를 주도해 온 서구의 세계관은 그 한계에 부딪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대안의 하나로 감소화 전략에 근거하는 미니멀리즘이 대두되고 있다. 뉴모던의 한 지향점인 미니멀리즘은 환원주의로 요약되는 본질로의 회귀 성향을 중요한 특성으로 하는데, 이는 동양적인 사유방식, 특히 노자의 도가사상 속에서 많은 부분의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다. 비움으로써 채우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모순과 역설의 세계관은 서구의 합리적 세계관에 대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한다.

본 연구는 표현의 간소화를 제1의 형태적 특성으로 삼고 있는 미니멀리즘의 건축공간을 형태적 문제가 아니라 공간적 문제로, 더 나아가 공간의 인식적 차원을 중요하게 다루어 전개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간의 경계와 확장성의 문제, 고풍체를 통한 허체의 표현과 이를 통한 역설적 세계의 중요성, 그리고 탈허상화와 본질주의의 문제를 짚어봄으로써 미니멀리즘과 동양적 사유방식의 관계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미니멀리즘은 다원화하며 비물질화하는 현대문화 속에서 비본질적인 가능한 모든 것을 제거함으로써 남게 되는 순수한 대상, 그 속에서 발견되는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업으로 그 중요성을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니멀리즘 건축공간과 조형에서 보여지는 절제된 미의식은 인간과 자연을 매개하는 환경으로서의 건축공간, 이를 통한 실존적 주체를 성찰하는 매개로서의 건축공간을 추구하고, 그것이 '모더니즘의 기계미학'으로부터 오는 단순성이 아니라 21세기를 전개할 세기말의 새로운 미니멀리즘 디자인 철학³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작가와 작품을 대상으로 할 때 얻어질 수 있는 실증적 결과에 치중하기보다는 한 세기를 관통하는 디자인과 근저의 사상적 흐름을 주목하는 보다 규범적 차원의 것으로, 이것이 본 연구의 한계인 동시에 발전적 모색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참고문헌

1. Amos Ih Tiao Chang, The Tao of Architecture: 건축공간과 노자사상, 윤장섭 역, 기문당, 1984
2. Glancey & Bryant, The New Modern, Academy Edition:London, 1990
3. Aspect of Minimal Design, Academy Edition:London, 1990
4. The New Modern Aesthetic, Architectural Design, Academy Edition:London, 1990
5. Rosalind E. Krauss, Passages in Modern Sculpture, The MIT Press, 1983
6. 루시-스미스, 1945년 이후 현대미술의 흐름, 김춘일 역, 미진사, 1993
7. Suzi Gablik, Minimal in Concepts of Modern Art, Thames and Hudson, 1983
8. Ando Tadao, Blaster-Werner, 1990
9. Architectural Design, Aspects of minimal architecture II, 1999, Academy Editions
10.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 공간, 시공사, 1999
11. 우경국, 관계·흐름·건축, 현대건축사, 1998
12. 헤롤드 로젠버그 외, 현대미술의 흐름, 열화당, 1986
13. William J.Curtis,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Phaidon press, 1996
14. 강소연·김형우, 패션매장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의 실내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6호, 1998.8.

15. 하민수, 미니멀리즘의 의미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홍대 석논, 1986
16. 신정화, 현대 조형예술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적 특성과 실내공간 구성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1996
17. Ando Tadao, Japan Architecture JA, 1991.1.
18. 이우환, 오브제 사상의 정체와 그 행방, 홍익미술 Vol.1, 1972

<접수 : 1999. 8. 2>

38)우경국, 관계·흐름·건축, 현대건축사, 1998, p.44